

1. 소금에 대하여

1 소금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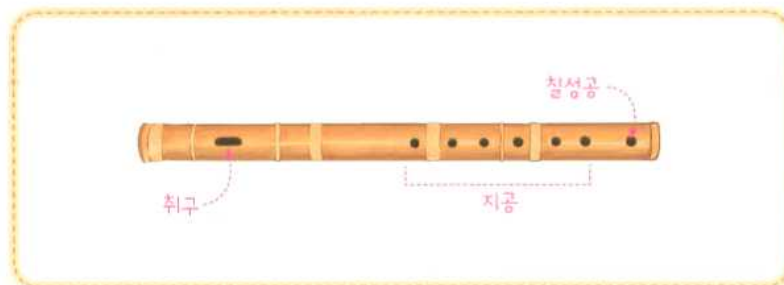
소금은 신라시대부터 전해오는 삼현(三絃: 가야금, 거문고, 향비파) 삼죽(三竹: 대금, 중금, 소금)의 하나로, 국악기 중 가장 높은 음을 내는 가로로 부는 관악기입니다.

소금은 만드는 재료에 따라 황죽(黃竹), 오죽(烏竹), 쌍골죽(雙骨竹)으로 된 대나무 소금과 플라스틱 소금 등으로 분류됩니다.

소금은 높은 음역으로 맑고 깨끗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서 전통음악이나 창작음악을 연주할 때 선율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더해줍니다.

2 소금의 구조

소금은 입술을 대는 부분인 '취구'와 손가락으로 막아서 음정을 내는 6개의 '지공', 소금의 음정과 음색을 조절하는 '칠성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소금 소리내기

1 소리내기

입술 모양 만들기

소금은 취구에 입김을 다 넣지 않고 취구와 바깥쪽에 반반씩 넣기 때문에 처음에 바로 소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각각의 입술모양과 두께, 입의 돌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를 예쁘게 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 상태에 맞는 입김의 방향과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연습을 해봅니다.



① 입술펴기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일치시켜서 입술을 자연스럽게 다문 다음, 양옆으로 당겨서 펴 줍니다.



② 입모양 만들기

입술을 펴고 다문 상태에서 '옴' 발음을 해준 후 '휘' 발음으로 가운데에 입김을 내는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③ 입김으로 손가락 맞추기

입술 가운데 부분에 검지손가락을 갖다 대고 손가락에 바람을 맞춰 봅니다.

취구에 입술 대기

취구에 대는 입술의 위치와 입김의 방향을 익히려면 처음에는 얼굴을 정면으로 하고 소금이 얼굴과 일직선이 되도록하여 소리내기 연습을 합니다.



❶ 입술에 닿을 취구 위치

소금의 취구 중 ⑥부분에 아랫입술 끝선을 갖다 댑니다.



❷ 입술을 덮은 취구의 위치

악기를 살짝 안으로 돌려서 아랫입술이 취구를 ③ 덮습니다. 앞에서 익힌 입술모양과 '취'발음의 입김으로 소리를 내 봅니다.

만약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면,

- 1) 입김이 입술 가운데에서 나오는지, 취구의 가운데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 2) 입술 밑에 닿을 취구의 위치가 맞는지 입김을 넣어서 소리가 나오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 3) 취구가 너무 많이 열려있거나 닫혀있는지 취구를 조금씩 안쪽으로 당기거나 바깥쪽으로 밀면서 입김의 방향과 맞는 위치를 찾아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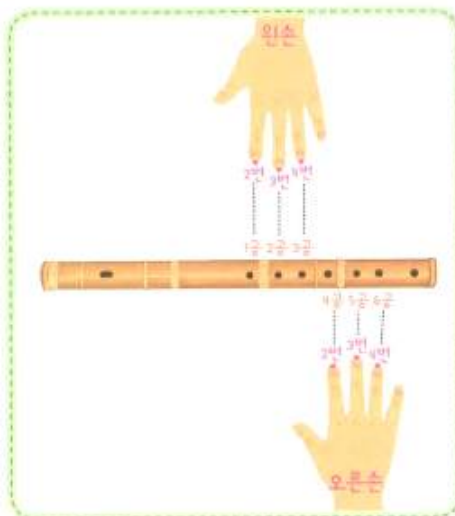
2 연주자세

소금을 연주할 때에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안정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바닥이나 의자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서 머리를 왼쪽으로 약 45° 돌리고, 고개를 약간 숙여서 시선을 15°정도 아래를 보고 취구에 입술을 대도록 합니다. 두 팔은 겨드랑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자연스럽게 벌리고, 악기는 어깨에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래로 쳐지거나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3 소금 잡는 법



① 왼손 2번, 3번, 4번 손가락으로 각각 소금의 1, 2, 3 지공을 막아 줍니다.



② 오른손 2번, 3번, 4번 손가락으로 각각 4, 5, 6 지공을 막아 줍니다.



③ 왼손과 오른손의 1번 손가락은 소금을 받쳐주고, 5번 손가락은 악기가 닿는 부분에 자연스럽게 붙입니다.

4 호흡법

모든 관악기가 그러하듯이 부는 악기는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금을 불 때에도 깨끗하고 안정된 연주를 위해서 복식호흡을 해주어야 합니다.

복식호흡이란 '배로 숨을 쉬는 호흡', 즉 공기가 뱃속 깊이까지 가는 호흡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힘에 의해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호흡을 말합니다.



- ①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공기를 천천히 깊게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나오도록 합니다.
- ② 소금을 부는 입모양을 한 상태로 천천히 바람을 내쉬면서 아랫배를 충분히 들어오게 합니다.
- ③ 처음에는 손바닥을 아랫배에 가져다 놓고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복식호흡을 따로 연습해 봅니다.

5 같은 음 중복의 연주법

반복되는 음이 연속으로 나올 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① 혀 치기
반복되는 음은 혀로 입천장을 '두' 또는 '루' 발음으로 살짝 쳐 줍니다.
(낮은 음은 '두', 높은 음은 '루'로 칩니다.)
- ② 손 치기
반복되는 음에서 그 음 아래음의 지공을 재빨리 막았다 떼어 줍니다.
(단, 지공을 다 막는 林(임)은 위음인 南(남)을 재빨리 떼었다 막아 줍니다.)
- ③ 숨 끊기
반복되는 음이 나오면 숨을 끊고 그 음을 재빨리 다시 불어줍니다.